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3(1)(1) 어미 말과 새끼 말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유형

「어미 말과 새끼 말」과 학습 활동에 제시된 「최고운전」의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부터, 단순히 작품의 내용에 대해 지엽적으로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단원은 시험 범위에 자주 포함되는 단원이 아니지만,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묻는 문제도 출제되므로 대단원 도입 글과 중단원 도입 글까지 꼼꼼히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옛날 대국 천자가 조선에 인재가 있는지 알기 위해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조선 임금에게 보내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라고 한다. 임금은 원 정승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원 정승은 고민에 빠진다.

그러구 가마안히 생각해 보닝개 도리가 있으야지? 그래 앓구 두러웠네? 머리 싸매구 두러웠느라니까, 즈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아?” 그러거든.

“야? 아무 날 조화에 가닝까아, 이 말을 두 마리를 주면서 골르라구 허니이, 이 일을 어트가야 옴은단 말이냐아?”

“아이구, 아버지. 걱정 말구 긴지 잡수시라구. 내가 골라 디리게.”

“니가 골러?”

“예예. 걱정 말구 긴지 잡수시오.”

㉠ 그래, 아침을 먹었어. 먹구서 그 이튿날 갔는디, 이놈이 콩을 잔뜩, 삶어 가지구설랑은 여물을 맨들어. 여물을. 여물을 대애구 맨들어 놓는단 말어. 여물을 맨들어 가지구서는 갖다 향곳이다가 떠억 놓거든. 준담 말어. 구유다가 여물을. 여물을 주닝개, 잘 먹어어? 둘이 먹기를. 썩 잘 먹더니 주동패기루 콩을 대애구 요롭게 제쳐 주거든? 옆잇 놈을? 콩을

제쳐 줘. 저는 조놈만 먹구. 짚만 먹구 인저, 콩을 대애구 저쳐 준단 말어.

새끼 주는 식(셈)이지 그러닝개. 대애구 요롭게, “아버지, 아버지. 이거 보시고. 이루 오시고.”

“왜냐?”

나가 보닝개,

“요게 새깁니다. 요건 에미구. 포를 허시고.”

포를 했어.

“음. 왜 그러냐?” 그러닝개,

“아 이거 보시고. ㉡ 콩을 골라서 대애구 에미라 새끼 귀해서 새끼를 주지 않습니까? 새끼 귀헌 중 알구. 그래 콩 중 게 이게 새끼요오. 이건 에미구.”

아, 그 이튿날 아닝 것두 아니라 가주 가서, “이건 새끼구 이건 에미라구.” 그러닝개, 그러구서는 대국으로 떠억 포해서 보냈단 말어. 그러닝개.

“㉢ 하하아, 한국에 연대까장 조선에 인자가 연대익구나아.” 그러드라.

- 작자 미상, 「어미 말과 새끼 말」

(나)

황제가 신라에는 뛰어난 선비가 많아 자신들은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신라를 침공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황제는 계란을 솜으로 싸서 돌로 만든 함에 가득 채운 뒤 그 속에 밀랍을 녹여 부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다시 함 밖에 구리와 철을 녹여 부어 함을 열어 볼 수 없게 했다. 그러고는 함을 가져가는 사신에게 옥새를 찍은 문서를 주었다. 문서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함 속에 든 물건을 알아맞혀 이에 대한 시를 지어 바치지 못한다면 장차 너희 나라를 썩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노심초사하던 신라 임금은 이 일을 나 승상에게 맡긴다. 마침 그 집의 종으로 들어와 있던 열한 살 된 최고운은 나 승상의 요청을 받고 그의 딸과 혼인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짓는다. ㉣ “돌 속엔 둥근 알 / 반은 옥이요, 반

은 황금이로다. / 시간을 아는 새가 밤이면 밤마다 /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지 않누나.”

마침내 왕이 사신으로 하여금 시를 가지고 가서
중국 황제에게 바치게 했다. 황제가 한참 동안 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알’이라고 한 건 맞지만,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
지 않누나.’라고 한 건 틀렸다.”

㉠ 그런데 함을 열어 보니 그 속에 솜으로 싸 두었
던 계란이 병아리로 변해 있는 게 아닌가. 황제는 그
제야 비로소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지 않누나.’라는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탄식하며 말했다.

“천하의 기재(奇才)로구나!”

- 작자 미상, 「최고운전」에서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방언이 사용되어 생동감과 현장감이 드러난다.
- ② 민중의 삶과 정서가 운을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
다.
- ③ 주인공의 행위에서 영웅적이면서 전기적인 요
소가 드러난다.
- ④ 타민족에게 당했던 설움을 정신적으로 보상받
고자 하는 민중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⑤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나 줄거리나
배경 등은 허구이다.

2. (가)와 (나)의 갈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전승 방식에 따라 구비 문학
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차자(借字) 문학으로서 국문
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한글로 기록 전승된 문학으
로서 국문 문학에 해당한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언어로 전승되었으며,
주로 민중에 의해 창작 및 향유되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서사 갈래로 분류할 수 있으
며, 설화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3. (가)와 (나)의 내용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역사상의 실존 인물 이야기
에 허구성을 가미하였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대국의 난제 해결’이라는 화
소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월성 및 자긍심을 고취
하였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초역사적인 시간 배경과 사
실성이 제거된 흥미 본위의 이야기로 구성되었
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구체적 시간과 장소가 제시
되었으며 개별적 증거물을 통해 진실성을 확보
하였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비범한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우리 민족의 설움을 정신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민중 심리가 반영되었다.

4.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말과 지역 방언의 사용, 내용 반복 등을 통
해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 모성애를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생명 윤리로
인식한 당대 사람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문법적 오류를 통해 즉흥적인 구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으
로, 서사를 진행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⑤ ㉤: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서사적 장치로서 기능
하여 개연성과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 대국 천자가 조선에 인재가 있나 없나아, 이걸 알기 위해서 말을 두 마리를 보냈어. 말. 대국 서 잉? 조선 잉금게루 보내면서,
 “이 말이 어떤 놈이 새끼구 어떤 놈이 에미가 이것을 골라내라아.” 하구서…….

똑같은 놈여. 똑같이 그게 둘 다. 그러구서 보냈어. 조선에 인자가 있나 없나. 인자가 많았억거던? 조선에? 내력이루. 자아 그러니 워트겨 이걸?
 원 정승이라는 사램이 있어. 그래 아침 ㉡ 조회 때 들어가닝께,
 “이 원 정승 ㉢ 이놈 갖다가 이걸 골러내쇼오.” 말여. 보낸다는 게 원 정승에게다 보냈어. 응. 인제 가서 골라내라는 기여.

원 정승이 갖다 놓구서, 이거 어떤 놈이구 똑같은 놈인디 말여, 색두 똑같구 워땡 게 에민지 워땡 게…… 똑같어어? 그저어?
 “새끼가 워땡 겐지 에미가 워땡 겐지 그거 모른다.” 그러닝께,
 “그려요?”

그러구 가마안히 생각해 보닝께 도리가 있으야지? 그래 앓구 두러웠네? 머리 싸매구 두러웠느라니까, 즈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아?” 그러거든.

“야? 아무 날 조회에 가닝까아, 이 말을 두 마리를 주면서 골르라구 허니이, 이 일을 어트가야 옳은단 말이나아?”
 “아이구, 아버지. 걱정 말구 ㉣ 긴지 잡수시라구. 내가 골라 디리께.”
 “니가 골러?”
 “에에. 걱정 말구 긴지 잡수시오.”

그래, 아침을 먹었어. 먹구서 그 이튿날 갔는디, ㉤ 이놈이 콩을 잔뜩, 싹어 가지구설랑은 여물을 맨들어. 여물을. 여물을 대애구 맨들어 놓는단 말여. 여물을 맨들어 가지구서는 갖다 향곳이다가 떠억 놓거든. 준담 말여. 구유다가 여물을. 여물을 주닝께, 잘 먹어어? 둘이 먹기를. 썩 잘 먹더니 주동패기루 콩을 대애구 요롭게 제쳐 주거든? 옆잇 놈을? 콩을 제쳐 줘. 저는 조놈만 먹구. 짚만 먹구 인저, 콩을 대애구 저쳐 준단 말여.

새끼 주는 식(셈)이지 그러닝께. 대애구 요롭게,
 “아버지, 아버지. 이거 보시고. 이루 오시고.”

“왜냐?”
 나가 보닝께,
 “요게 새깁니다. 요건 에미구. 포를 허시고.”
 포를 했어.
 “음. 왜 그러냐?” 그러닝께,
 “아 이거 보시고. 콩을 골라서 대애구 에미라 새끼 귀해서 새끼를 주지 않습니까? 새끼 귀헌 중 알구. 그래 콩 중 게 이게 새끼요오. 이건 에미구.”
 아, 그 이튿날 아닝 것두 아니라 가주 가서, “이건 새끼구 이건 에미라구.” 그러닝께, 그러구서는 대국으로 떠억 포해서 보냈단 말여. 그러닝께.
 “㉥ 하하아, 한국에 연대까장 조선에 인자가 연대익구나아.” 그러드랴.
 - 작자 미상, 「어미 말과 새끼 말」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화의 일종으로 전설에 속한다.
- ② 군말, 불필요한 반복 같은 구어적 특성이 드러난다.
- ③ 전문 이야기꾼에 의해 전승되어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 ④ 한글 창제 이후 더는 구비 전승되지 않고 문자로 정착되었다.
- ⑤ 어린아이의 영리한 발상을 통해 어른들의 허위 의식과 무지를 드러낸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큰 나라’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중국을 말한다.
- ② ㉡: ‘조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 ‘말 두 마리’를 말한다.
- ④ ㉣: ‘밥에 대한 높임말’의 사투리이다.
- ⑤ ㉤: ‘말을 돌보는 중’을 가리킨다.

7. @에 드러난 감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경탄
- ② 후회
- ③ 애도
- ④ 기쁨
- ⑤ 즐거움

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설화는 말로 구연된다는 점에서 기록 문학과 구분된다.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전해 내려오며 공동으로 창작된 이야기들이다. 설화는 크게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어지는데 신화는 수용자들에 의해 신성시되는 이야기로 건국 신화나 시조 신화 등이 있다. 전설은 사람들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로 많은 경우 증거물이 남아 있다. 민담은 신화도 전설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리킨다.

- ① 신성성이나 사실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꾸며낸 이야기인 민담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이야기의 증거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총명한 어린아이가 신성시되고 있으므로 신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조선이라는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민담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대국 천자라는 존재를 통해 한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9. 위 작품을 이해한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1: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해해보라고 하셨잖아. 우선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편성은 뭐라고 생각하니?

학생 2: 모성애와 관련된 주제 의식을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ㄱ

학생 3: 오, 나는 이 작품의 주제를 '영리한 발상을 통한 국가 위기의 극복'으로만 생각했는데,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ㄴ

학생 2: 흠, 근데 특수성은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학생 1: 우리 민족만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만의 특수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ㄷ

학생 3: 맞아, 이 작품에는 우리나라가 비록 작고 힘은 약하지만 많은 인재를 지녔다는 민족적 자부심과 북방 민족에게 당하는 시달림을 정신적으로 극복, 보상하려는 마음이 드러나지. ㄹ

학생 1: 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문학이라는 점에서도 한국 문학의 특수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어! ㅁ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이 아직 일곱 살이 못 된 아이의 재주가 이 정도니 명망 있는 선비들의 글재주는 대체 얼마나 뛰어나겠나!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신라에 들어오긴 했으나 어찌 대적하여 글재주를 겨룰 수 있겠소?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소.”

학사들은 중국으로 돌아와 황제에게 아뢰었다.

“신라의 선비들 중엔 글재주가 뛰어난 이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뛰어난 이는 저희 같은 사람 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신라를 침공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황제는 계란을 솜으로 싸서 돌로 만든 함에 가득 채운 뒤 그 속에 밀랍을 녹여 부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다시 함 밖에 구리와 철을 녹여 부어 함을 열어 볼 수 없게 했다. 그러고는 함을 가져가는 사신에게 옥새를 찍은 문서를 주었다. 문서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함 속에 든 물건을 알아맞혀 이에 대한 시를 지어 바치지 못한다면 장차 너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노심초사하던 신라 임금은 이 일을 나 승상에게 맡긴다. 마침 그 집의 종으로 들어와 있던 열한 살 된 최고운은 나 승상의 요청을 받고 그의 딸과 혼인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짓는다. “돌 속엔 둥근 알 / 반은 옥이요, 반은 황금이로다. / 시간을 아는 새가 밤이면 밤마다 /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지 않누나.”

마침내 왕이 사신으로 하여금 시를 가지고 가서 중국 황제에게 바치게 했다. 황제가 한참 동안 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알’이라고 한 건 맞지만,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지 않누나.’라고 한 건 틀렸다.”

그런데 함을 열어 보니 그 속에 솜으로 싸 두었던 계란이 병아리로 변해 있는 게 아닌가. 황제는 그제야 비로소 ‘정만 머금고 소리는 내지 않누나.’라는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탄식하며 말했다.

“천하의 기재(奇才)로구나!”

- 작자 미상, 「최고운전」에서

10. 윗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최고운전」은 중국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 대국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외교적 사대를 강요하여 수치와 설움을 주었다. 이러한 무시와 설움을 갚기 위해 신라 시대의 학자로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하고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 최치원의 행적을 허구화한 것이다. ㉡ 중국 황제가 낸 문제를 해결하는 등 ㉢ 최치원의 영웅적 모습을 통해 ㉣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고 (㉤)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윗글의 ‘최고운’으로, 실존 인물이다.
- ② ㉡은 함 속에 든 물건을 알아맞히는 문제이다.
- ③ ㉢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은 윗글에서 황제가 최치원의 비범함을 깨닫게 되는 부분을 통해 드러난다.
- ⑤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중국에 당했던 설움을 풀고자 하는 소망’이다.

1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비 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문학으로, 민요, 무가, 판소리계 소설 등이 있다.
- ② 기록 문학은 다시 표기 방식에 따라 한문 문학과 국문 문학으로 나뉜다.
- ③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어를 통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다.
- ④ 한국 문학은 전승 방식에 따라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뉜다.
- ⑤ 한문 문학은 한자의 수입 이후 한자로 창작, 기록된 문학으로, 한시나 한문 소설 등이 여기 속한다.

2024
고2 문학
지학사

2024 고2 문학 지학사 | 3(1)(1) 어미 말과 새끼 말 수능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대국 천자가 조선에 인제가 있나 없나아, 이걸 알기 위해서 말을 두 마리를 보냈어. 말. 대국서 잉? 조선 잉금게루 보내면서,

“이 말이 어떤 놈이 새끼구 어떤 놈이 에미가 이것을 골라내라아.” 하구서…….

똑같은 놈어. 똑같이 그게 둘 다. 그러구서 보냈어. 조선에 인자가 있나 없나. 인자가 많았억거던? 조선에? 내력이루. 자아 그러니 워트겨 이걸?

원 정승이라는 사램이 있어. 그래 아침 조회 때 들어가닝께,

“이 원 정승 이놈 갖다가 이걸 골라내쇼오.” 말어. 보낸다는 게 원 정승에게다 보냈어. 응. 인제 가서 골라내라능 기어.

원 정승이 갖다 놓구서, 이거 어떤 놈이구 똑같은 놈인디 말어, 색두 똑같이 워명 게 에민지 워명 게…… 똑같이어? 그저어?

“새끼가 워명 겐지 에미가 워명 겐지 그거 모른다.” 그러닝께,

“그려요?”

그러구 가마안히 생각해 보닝께 도리가 있으야지? 그래 앓구 두러웠네? 머리 싸매구 두러웠느라니까, 즈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아?” 그러거든.

“야? 아무 날 조회에 가닝까아, 이 말을 두 마리를 주면서 골르라구 허니이, 이 일을 어트가야 옳은단 말이냐아?”

“아이구, 아버지. 걱정 말구 긴지 잡수시라구. 내가 골라 디리께.”

“니가 골러?”

“에에. 걱정 말구 긴지 잡수시오.”

그래, 아침을 먹었어. 먹구서 그 이튿날 갔는데, 이놈이 콩을 잔뜩, 삶어 가지구설랑은 여물을 맨들어. 여물을. 여물을 대애구 맨들어 놓는단 말어. 여물을 맨들어 가지구서는 갖다 향곳이다가 떠억 놓거든. 준담 말어. 구유다가 여물을. 여물을 주닝께, 잘

먹어어? 둘이 먹기를. 썩 잘 먹더니 주동패기루 콩을 대애구 요롭게 제쳐 주거든? 옆잇 놈을? 콩을 제쳐 줘. 저는 조놈만 먹구. 짚만 먹구 인저, 콩을 대애구 저쳐 준단 말어.

새끼 주는 식(셈)이지 그러닝께. 대애구 요롭게, “아버지, 아버지. 이거 보시고. 이루 오시고.”

“왜냐?”

나가 보닝께,

“요게 새깁니다. 요건 에미구. 포를 허시고.”

포를 했어.

“음. 왜 그러냐?” 그러닝께,

“아 이거 보시고. 콩을 골라서 대애구 에미라 새끼 귀해서 새끼를 주지 않습니까? 새끼 귀한 중 알구. 그래 콩 중 게 이게 새끼요오. 이건 에미구.”

아, 그 이튿날 아닝 것두 아니라 가주 가서, “이건 새끼구 이건 에미라구.” 그러닝께, 그러구서는 대국으로 떠억 포해서 보냈단 말어. 그러닝께.

“하하하, 한국에 연대까장 조선에 인자가 연대 익구나아.” 그러드라.

- 작자 미상, 「어미 말과 새끼 말」

1.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 정지상, 「송인(送人)」

① 윗글은 북방 민족에게 당했던 서러움을 정신적으로 보상 받으려는 우리 민중의 심리가 반영되

- 어 있다.
- ② <보기>는 칠언 절구의 한시로 형식적 요소인 압운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었다.
 - ③ 윗글과 달리 <보기>는 기록되어 전하는 문학이다.
 - ④ <보기>와 달리 윗글은 생동감과 현장감이 느껴진다.
 - ⑤ 윗글과 <보기>는 모두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된다.

【2~3】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기> —

[앞부분 줄거리] 신라 원성왕 때 낭군 김현이라는 사람이 흥륜사의 전탑을 돌다 호랑이 처녀를 만나 그녀의 집으로 따라간다. 그곳에서 호랑이 처녀의 오빠들이 김현을 잡아먹으려 하자 하늘이 호랑이 처녀의 오빠들을 징치하려고 한다. 호랑이 처녀는 오빠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겠다고 한다.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낭군과는 비록 유가 다르지만, 하룻저녁의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의를 맺었습니다. 세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자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제가 내일 시가[市]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요행으로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天命)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서 다섯 가지 이로운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勝報]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는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먼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낭군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현이 찢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에서 나와 소리쳐 말하기를, “지금 이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하였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고 다만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 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梵網經)』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였다.

- 작자 미상, 「김현감호」

2. 다음은 윗글과 <보기>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학생의 응답	
		예	아니오
①	윗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가?	√	
②	<보기>는 군말과 사투리의 사용을 통해 구어 담화적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가?		√
③	<보기>와 달리 윗글에서는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나타나는가?		√
④	<보기>와 달리 윗글에서는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는가?		√
⑤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특정 인물이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가?	√	

3.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윗글과 <보기>의 세부 갈래가 도출되었다.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질문 1.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가?
예 √ 아니오 √

질문 2. 구비 전승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질문 3. (㉡) ㉢
예 √ 아니오 √

신화

질문 4. 증거물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보기> 윗글

㉠. ㉠에 해당하는 갈래는 '내간체', '민속극'이고, ㉡에 해당하는 갈래는 '기(記)', '가사(歌辭)'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은 '신적인 인물이 주인공인가?'이다.
㉣. 알고리즘의 결과로 윗글은 민담, <보기>는 전설임을 알 수 있다.
㉤. '질문 4'를 '흥미 본위의 이야기인가?'로 바꾸어도 현재와 동일한 알고리즘 결과가 도출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④

(가)와 (나) 모두 우리보다 큰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서 우리 조정을 궁지에 몰지만, 비범한 이가 나타나 문제를 통과하게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록 작고 힘은 약하지만 많은 인재를 지녔다는 민족적 자부심과 북방 민족에게 당하는 시달림을 정신적으로 극복, 보상하려는 마음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
- ② (가)와 (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 특징이다.
- ③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
- ⑤ (나)는 실존 인물인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에 허구성을 더하고 있지만, (가)는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정답] ④

(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문학으로, 주로 민중들에 의해 창작, 향유된 구비 문학은 한글 창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민중들의 감정과 생활상을 담아내었다. 한편 (나)는 문자 언어로 기록되고 전승된, 기록 문학에 해당한다.

- ① (가)는 구비 문학, (나)는 기록 문학에 해당한다.
- ②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던 향가 등을 차자 문학이라고 하는데, (가)와 (나) 모두 차자 문학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가)는 기록 문학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구비 문학에 해당한다. 한편 (나)는 한문으로 기록 전승된 기록 문학으로 한문 문학에 해당한다.
- ⑤ (가)와 (나) 모두 서사 갈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설화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은 (가)이다.

3. [정답] ②

(가)와 (나) 모두 우리보다 큰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서 우

리 조정을 궁지에 몰지만, 비범한 이가 나타나 문제를 통과하게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록 작고 힘은 약하지만 많은 인재를 지녔다는 민족적 자부심과 북방 민족에게 당하는 시달림을 정신적으로 극복, 보상하려는 마음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역사상의 실존 인물 이야기에 허구성을 가미한 것은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
- ③ 사실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허구적인 흥미 본위의 이야기인 것은 (가)이다.
- ④ 구체적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었으며 개별적 증거물을 통해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설의 특징으로, (가)는 설화 중 민담에 해당한다.
- ⑤ (가)와 (나)는 각각 원 정승의 아들과 최고운이라는 비범하고도 영리한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우리 민족의 설움을 정신적으로 보상받으려는 민중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4. [정답] ⑤

㉠을 개연성과 사실성을 확보하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서사적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 ① ㉠에서 군말 사용, 내용의 반복 같은 구어 담화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② ㉡을 통해 짐승과 사람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모성애와 관련된 주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은 ‘하하아, 한국에 아직까지 조선에 인재가 아직 있구나.’라는 의미로, 문맥이 부자연스러운데, 이를 통해 즉흥적인 구연 상황에서 채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은 최고운이 지은, 석함의 물건을 알아맞히는 시로, 최고운의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며, 황제가 준 난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정답] ②

윗글은 군말 사용, 내용의 반복 같은 구어 담화의 특성이 드러난다.

- ① 윗글은 설화의 일종으로 민담에 속한다.
- ③ 윗글과 같은 구비 문학은 전문 이야기꾼이 아니라 민중들에 의해 창작되고 전승된다.
- ④ 윗글과 같은 구비 문학은 한글 창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민중들의 감정과 생활상을 담아

내었다.

㉔ 윗글에서 원 정승의 아들이 영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어른들의 허위의식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6. **정답** ⑤

㉔은 말을 돌보는 종이 아니라 원 정승의 아들을 가리킨다.

① ㉑은 ‘큰 나라’라는 뜻으로, 이 작품에서는 ‘중국’을 일컫는다.

② ‘조례(朝禮)’는 ‘학교 따위에서 그 구성원들이 모여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아침 모임’ 또는 ‘조정 관리들이 아침에 궁궐에 모여 임금을 뵈던 일’을 의미하고, ‘조회(朝會)’는 ‘학교나 관청 따위에서 아침에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또는 그런 모임’ 또는 ‘모든 벼슬아치가 함께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을 의미하므로 둘을 바꿔 쓸 수 있다.

③ ㉔은 원 정승에게 보낸 어머니 말과 새끼 말, 즉 말 두 마리를 일컫는다.

④ ㉔은 ‘밥에 대한 높임말’인 ‘진지’의 사투리이다.

7. **정답** ①

㉔에는 어머니 말과 새끼 말을 구별한 것에 대한 대국 천자의 경탄(감탄)이 담겨 있다.

②, ③, ④, ⑤ 나머지는 ㉔에 담긴 대국 천자의 감정으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①

윗글은 설화 중 민담에 해당한다. 신성성이나 사실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허구적인 흥미 본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② 이야기의 증거물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전설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총명한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총명한 어린아이를 신성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민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대국 천자를 통해 한 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9. **정답** ⑤

윗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문학인 구비 문학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구비 문학이 한국 문학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갈래인 것은 아니다.

① 윗글은 짐승과 사람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모성애와 관련된 주제 의식을 담아낸 민담이다.

② 윗글의 주제는 ‘새끼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영리한 발상을 통한 국가 위기의 극복’이다.

③, ④ 윗글은 우리보다 큰 나라의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서 우리 조정을 궁지에 몰지만, 비범한 이가 나타나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록 작고 힘은 약하지만 많은 인재를 지녔다는 민족적 자부심과 북방 민족에게 당하는 시달림을 정신적으로 극복, 보상하려는 마음이 문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수한 정신은 한국 문학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보여 준다.

10. **정답** ③

㉔은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달리 주인공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㉑은 역사상의 실존 인물로, ‘고운’은 최치원의 자(字)에 해당한다.

② ㉒은 함 속에 든 물건을 알아맞혀 이에 대한 시를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다.

④ 윗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황제가 최치원의 비범함을 깨닫고 탄복하는 부분을 통해 ㉔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문맥상 ㉔에는 ‘중국에 당했던 설움을 풀고자 하는 소망’, ‘중국에 당했던 시달림을 정신적으로 극복, 보상하려는 마음’ 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정답** ①

구비 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문학으로, 민요, 설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등이 여기에 속한다. 판소리계 소설은 기록 문학에 해당한다.

②, ④ 한국 문학은 전승 방식에 따라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뉘고, 기록 문학은 다시 표기 방식에 따라 한문 문학과 국문 문학으로 나뉜다.

③ 한국 문학이란 한국인이 한국어어를 통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